

2011 미국여론조사학회 컨퍼런스 참가 결과 보고

I 개 요

1. 회의명

- 제66차 AAPOR 컨퍼런스
(66th Annual Conference of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)

2. 참가목적

- 조사방법론 분야 관련 최신 연구 동향 파악
- 열악한 조사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조사방법 모색 필요
- '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'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

3. 출장기간: 2011. 5. 11 ~ 5. 17

4. 지역 및 참가자

- 지역: 미국, 아리조나
- 참가자: 안병건 서기관, 박상진 사무관

II 출장 결과

1. 개요

□ 주최기관

- AAPOR(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)
 - 학계, 정부 및 리서치기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
 - 관계기관들이 자료수집, 분석, 자료의 공표 등 전 과정에서 항상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해오고 있음

□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 워크숍 준비

-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참가 연사들과 세션 구성 협의
-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참가 추가 연사 접촉

2. 주요 발표 논문

□ 인터넷조사 향상을 위한 방법

- Knowledge Networks의 Larry Osborn팀은 웹조사에서 추가 정보 제공 시 어떤 모드(오디오/비디오, 오디오 전용, 스크린 문자)를 채택하는 것이 최적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
 - 대상자는 18세이상 미국 거주자로 1,006명이 응답했으며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'글로벌 기후변화와 엔지니어링 기술에 대한 국민의식 및 태도 조사'에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에 관한 2개 예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조사 실시

- 오디오/비디오, 오디오 전용, 스크린 문자 3가지 모드 중 하나를 이용하여 이 내용을 리뷰하게 한 이후 원하면 다른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드에서 동 내용을 리뷰하게 함
 - 832명이 한 가지, 128명이 두 가지, 46명이 3가지 모두 이용하여 내용 리뷰
 - 결론적으로 스크린 문자가 다른 모드로의 선택이 가장 적은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모드 있으며, 젊고, 백인, 높은 교육, 높은 소득의 응답자는 처음 선택에서 스크린 문자를 선호했으며,
 - 나이 많은, 비백인, 낮은 교육, 낮은 소득의 응답자들은 처음 선택에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선호했고 한 가지 이상의 모드를 선호
- Ms. Redline는 응답자의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‘설명 (Clarification)’을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키는 것이 효과적인지 연구를 했으며
- 이를 위해 ‘설명’을 질문지와 동일한 폰트로 질문 전에 위치 Vs ‘설명’을 일련의 질문 속으로 연계하는 것이 조사결과를 향상시키는 지 비교
 - 대규모 전국조사에 있는 8개 질문에 대해 인터넷조사 실시하여 완료된 913개를 이용하여 분석
 - 결론적으로 질문 속으로 ‘설명’을 연계시키고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이었음
- Tania Coiner팀은 어떤 웹조사 응답자 중에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‘설명’을 클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어떤 인지적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이

이들을 구분할 수 있는 지를 연구

- 이를 위해 60명이 가상시나리오에 근거한 행동질문(일부 항목은 가상적으로 난해한 질문을, 일부는 응답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게 구성) 과 Symbol Search and Digit Symbol Coding subtests of the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and Dickman Impulsivity index(DII, 1990)를 실시
- 결과는 빠른 진행점수를 지닌 응답자가 더 자주 '설명'부분을 요구하고 더 정확한 답을 하였으며 '장애적 충동(dysfunctional impulsivity)' 에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덜 '설명'을 요구하며 덜 정확한 답변을 더 빠르게 답변하는 경향 보임
- '상징 추적(Symbol Search)'과 '장애적 충동(dysfunctional impulsivity)'은 '설명'요청 횟수의 강한 예측 지표로 사용 가능

○ 미시간대학의 Fredric Conrad팀은 가상면접자 모습이 - 특정 인종과 젠더에 속한다고 응답자가 생각하는 태도 - 인종과 젠더관련 질문에 영향을 주는 지 여부를 연구

- 1735명(흑인과 백인이 반씩, 남녀 반씩)이 16명(흑인, 백인, 남, 여)의 가상면접자중 한명으로부터 인종과 젠더관련 질문 받음.
- 결론은 인종관련 질문에는 가상면접자의 인종에 영향을 받았으나 젠더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음.
- 또한 면접 후(post-interview)에 가상미래면접을 위해 가상면접자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, 흑인은 특히 흑인 가상면접자를 선택

□ 조사표 개선 전략

- Mr. Peytchev 팀은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트릭스 조사표 설계에 대해 제안
 - long form 조사는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고 장시간 응답으로 인해 모든 질문항목에 대해 동일한 관심 갖기가 현실에서 조사 후반으로 갈수록 측정오차 상승 가능성 상존
 - 조사 길이를 최소화하면서 모든 변수를 수집하려는 방법이 필요하기에 잠재적 해결책으로 조사를 모듈화하는 매트릭스 디자인 제안
 - 응답자는 조사 모듈중 하나를 랜덤하게 받아 응답하고 이 방법은 long form 조사에서 측정오차와 매트릭스 디자인에서 증가된 분산추정과 tradeoff를 제공
 - 인터넷조사에서 조사 후반부에 받은 질문은 측정오차가 더 크다는 증거 발견

- Ms. Anderson-Knott 팀은 네브라스카 주 Omnibus Survey(하나의 조사에 여러 client가 참여하는 조사)에서 문자박스 형식에 대해 연구
 - 이전 대학생대상 연구에서 개방형질문에 대해 줄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 박스에 더 많은 응답자가 작성
 - 이 연구를 확대 네브라스카 주민 2000명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옴니버스 조사에서 박스에 줄 있고 없음의 차이를 연구
 - 네브라스카 주에서 현 이슈가 되는 것을 개방형 질문으로 채택

(예, “네브라스카 주가 현재 직면한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?”)

- 형태의 차이에 더해 인구학적 서브그룹을 만들어 그룹간에 일관적인 효과가 있는 지 분석예정

○ Curtiss Cobb팀은 기대 봉급의 측정을 위한 최적의 질문 디자인을 연구

- 이전 연구에서 대답이 숫자이거나 카테고리일 때 개방형질문이 폐쇄형질문보다 더 정확하다고 주장. 항목 무응답, 단위 무응답, 답변의 분포면에서 실험한 결과 최적의 디자인은 개방형질문 먼저 한 후 무응답인 경우에 폐쇄형질문으로 하는 것으로 이었음

○ Ronald Z. Szoc팀은 범위 추정: 자가보고 하는 미디어 노출조사에서 ‘설명(Clarification)’의 효과 대해 연구

- 많은 연구에서 미디어 관련 활동 - TV시청, 라디오 듣기, 신문 보기, 인터넷 사용 등 - 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지 측정하는 조사가 다수
- 대부분의 사람은 주중에 이들 활동에 얼마를 사용하는 지 잘 모르므로 ‘설명’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려함(주중 ‘깨어있음’ 관점에서 또는 주당 총시간의 면에서, 소비하는 시간의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 더 적은 또는 더 많은 현실적인 추정시간에 영향을 주는 지 연구
- 1. 대조(“일반적으로 주중에 다음을 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소비합니까?” 추가적인 정보 미제공) 2. 깨어 있는 시간(“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주중에 112시간 깨어 있습니다”) 3. 총시간(“주중의 총시간은 168시간입니다”)를 이용

- 결론적으로 범위에 대한 '설명'제공 시에 각 항목별로 추정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음

□ 조사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

- Jacob Sohlberg팀은 응답률의 하락과 면접자에 대한 인건비 상승의 상황에서 응답률을 높이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여 면접자의 개인성향이 응답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
 - 개인성향이 일의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전 연구는 근면하고 외향적인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 경향 발견
 - 심리학과 정책과학에서 나오는 5가지 개성의 요인 즉 성실 (conscientiousness, 외향성(extraversion), 경험에 대한 개방성 (openness to experience), 호감(agreeableness, 신경과민(neuroticism).
 - 성실, 외향성, 경험에 대한 개방성, 호감이 높은 면접자는 높은 응답률을, 신경과민이 낮으면 높은 응답률을 기대.
 - 2010년 가을 대학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한 지역 RDD전화조사를 이용. 약 30명 면접자가 조사 진행. 다중분석으로, 거절, 협조 그리고 재전화에 대한 개인면접자 성향을 테스트.
-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Florian Keusch는 전화조사 참여율의 하락으로 온라인 패널 조사방법이 요즘 선호됨에 따라 온라인 패널 참여자의 동기에 대해 연구
 - 마켓연구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지만 금전적 보상에만 관심을 가진 자원응답자에 의해 생산되는 결과에

편의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.

- 이 연구는 온라인 패널 참여자의 깊은 관찰 즉 온라인 패널 참여 동기와 개인적인 성향을 1729명의 온라인평가패널 참여자를 대상으로 물질화(Richins 1997) 와 5개 성격 특성(Rammstedt & John 2005)을 질문
- 결과는 돈은 적절한 동기이나 주요인은 아니며 Psychographic 특성은 패널참여 행위에 별다른 영향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
○ Edison Research의 Joseph W Lenski는 면접자효과와 성취 측정에 대해 연구

- Edison Research는 전국적인 대학생에 관한 조사를 3개 하고 있으며 이 조사들은 응답한 질문의 약 반은 남자 면접자에 의해 나머지 반은 여자면접자에 의해 수행된 결과에 대해 면접자의 성별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도록 디자인됨.
- 40개 4년제 대학을 랜덤포본으로 하여 자기기입방법으로 조사했고 첫 조사가 2008년 2월, 3월, 그 다음조사가 2009년 4월, 5월에 수행되고 3번째 조사는 2010 9월에 실시
- 결론적으로 대학생들은 남자보다 여자 면접자에 의한 경우에 재정, 캠퍼스에서 안전, 정신건강, 감정적 스트레스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향 보였음.

○ 퍼듀대학교의 Mingnan Liu팀은 면접자 젠더에 따라 결혼관련 질문에 대한 응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

- 2006년 중국 일반사회조사에 사용된 결혼관련 질문에 대한

응답에 미치는 면접자 성별 효과를 연구.

- (a) 결혼한 남자가 미혼 남자보다 더 행복하다. (b) 결혼한 여자가 미혼 여자보다 더 행복하다. (c) 만일 결혼이 싱글보다 나은지 (d) 결혼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지에 대해 조사
- 결론적으로 면접자의 젠더가 결혼관련 질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 즉 여자 응답자는 남자 면접자보다는 여자 면접자에게 친-결혼의 응답을 보였으며 남자 응답자는 면접자의 젠더에 영향을 받지 않았음

○ Rand의 Marc Elliott팀은 follow-up으로 전화조사를 하는 우편 조사에서 2개 언어를 타겟으로 하는 스페인어 선호를 연구

- 전국조사에서 비용으로 인해 2개 언어 우편조사가 불가할 때 스페인어 하는 사람들의 응답률이 낮은 경향 보임
- 헬스케어 경험에 대한 Medicare CAHPS Survey는 2개언어 우편조사로, follow-up으로는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매년 조사이며
- Puerto Rico 이외 수혜자는 영어 우편조사를 받아 조사되며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전화조사를 통해 조사됨
- 성과 주소정보로 스페인어 사용선호 확률을 만들어 스페인어의 높은 선호 예상되는 6%중 받은 영어조사표, 나머지는 2개언어 조사표 발송
- 결론적으로, 응답하지 않던 사람들의 6%는 우편으로, 영어로 응답하던 사람들의 43%는 스페인어로 응답하는 효과를 얻음

4.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 준비 관련 사항

- 우리청 주관인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과 관련하여 초청 인사 및 관련 전문가와 면담 및 홍보물 배포

- 제3차 참가자 및 추가 초청자 접촉
 - Frederick Conrad(미 미시건대), 이승희(미 미시건대)
 - 향후 초청 가능자: Don Dilliman(미 워싱턴주립대 교수), Mick Couper(미 미시건대), Matthew Jans(미 센서스국),

- 주요 면담 내용
 - 전문가들은 우리청에서 주관하는 워크숍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하였으며 흥미를 보임
 - 2차 워크숍 초청자와는 세션 구성 및 역할 분담, 초청과 관련된 지원경비 처리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.

5. 컨퍼런스 참가 소감

- 통계리서치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방법론에 대한 최신 동향을 제공
 - 인터넷조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조사방법론상 검토해야 할 문제 그리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함

- 민간리서치회사의 통계조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발한 노력
 - 민간리서치회사의 활발한 연구를 독자적으로 또는 국가기관

그리고 대학교의 공동연구를 한다는 것이 흥미로 왔음

- 이를 통해서 이론과 실무의 조화가 이루어지고, 동시에 조사 방법론 분야의 이론적인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지속적인 선순환의 피드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봄

○ 우리통계청의 인터넷조사 방법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품질 측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

- 기존 조사방법과의 인터넷조사 방법이 조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에 대해 그리고 품질관리 측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
- 특히, 인터넷조사방법의 경우에는 파라데이터의 수집이 용이함으로 이를 이용한 조사개선의 모색이 필요
- 9월에 하는 제3차 인터넷조사 국제워크숍이 이와 같은 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되길 기대